

2008년 06월 02일 (월) 16:13 [연합뉴스](#)

## 부산문화재단, 내년 1월 본격 출범

부산시 공청회서 방침제시...문화계 의견 수렴해 7월부터 설립작업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시가 민간 전문가 주도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내년 1월 본격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문화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부산시의 의뢰를 받은 부산발전연구원 오재환 부연구위원이 재단의 설립방향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오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메세나 등 민간부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부산문화재단의 설립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으로 우선 재단 법인을 설립한 뒤 부산시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억원씩을 출연해 3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재단의 업무영역으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무대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등 기존 사업 외에 설립초기에는 학예진흥 및 부산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 사업을 수행하다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시민회관과 문화회관 등 각종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문화축제 및 문화행사의 기획.집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오 위원은 밝혔다.

오 위원은 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부산시는 문화공간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및 정책.기획, 법.제도 개선, 중앙정부 연계사업을 담당하고 각종 문화사업의 집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및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지역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체성 확립, 문화시설 위탁운영 등은 재단이 역할을 나눠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재단의 조직에 대해서는 시와 재단의 의견조정 편의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출연기관인 부산시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부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1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에 문화예술계 대표들을 선임해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사무처 인원은 소규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위원은 그러나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이사장을 맡을 경우 외부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실질적으로 재단을 이끌게 하고 기금의 규모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 같은 기본안을 토대로 이달까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세부계획 수립 및 관련조례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연말까지는 법인설립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lyh9502@yna.co.kr

(끝)

[<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